

박 준 영

전라남도지사

‘통로 암거’, ‘관행 농법’, ‘농후 사료’, ‘갑지’…… 무슨 뜻인지 알 듯 모를 듯한 행정 용어들이다. 이처럼 어려운 행정 용어의 사용은 민과 관의 간격을 멀어지게 하고, 소통을 단절시키는 요인이 된다.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의 서식 같은 것을 작성할 때에 어려운 행정 용어 때문에 치러야 하는 시간 비용이 연간 170억여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초,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 언어의 품질과 공무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립국어원과 ‘알기 쉬운 행정 용어 사용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올바른 우리말과 우리글 사용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며, 행정 용어의 순화와 공문서 바로 쓰기를 비롯해 쉽고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약 체결을 주도한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는 언론계 출신으로 대통령 공보 수석과 대변인, 국정홍보처장을 지냈으며, 지난 7월 전라남도 지사로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박준영 지사를 만나 행정 용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서 진단하는 우리 국어 생활의 현주소, 그리고 남다른 우리말 사랑에 대해 들어 본다.

답변자: 박준영(전라남도지사)

질문자: 장승욱(작가)

때: 2010년 8월 13일

곳: 전라남도 도청 지사 집무실

장승욱: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제36대 전라남도 지사로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셨는데, 소회가 어떠신지요?

박준영: 고맙습니다. 지난 6년간 도지사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지만, 전라남도는 아직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라남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전남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전남의 운명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저는 도민들께서도 여기에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미래의 전남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 나가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장승욱: 지난해 한글날 전날, 사업소·출연 기관 간담회에서 “각종 행정 용어에 국적 불명의 외국어가 난무하는 것은 문화적 종속주의의 산물로,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국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모든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등 문화 캠페인을 벌여 나가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

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박준영: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농약병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쓰는 농약 이름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써 놓으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걸 눈에 쓰는 뭐다, 이를테면 ‘벼멸구 약’이다, ‘멸구잡이’다, 이렇게 크게 쓰고 그다음에 이름을 붙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행정 용어는 소통의 대상이 누구냐,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알아 보게, 알아듣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한문을 많이 쓰다가 한글 세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영어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쇠퇴하고 다른 나라가 뜨면 또 다른 말이 영어의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민족의 뿌리에 관한 일입니다.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반만년 역사를 가진 문화 민족의 태도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말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의 화두는 ‘소통’인데, 소통의 핵심은 말이고 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 다시 말해 우리말, 우리글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국적 불명의 언어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전문 분야의 용어는 물론 행정 용어까지, 올바르게 쓰지 않은 언어 사용으로 용어의 참뜻이 왜곡되어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행정 용어와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은 보통 사람들을 문맹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의 서식 같은 것을 작성할 때에 어려운 행정 용어 때문에 치러야 하는 시간 비용이 연간 170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부터 행정 용어를 순화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보급하고자 어려운 행정 용어의 한글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장승욱: 그래서 올해 초(2010년 1월 26일), 국립국어원과 쉬운 행정 용어 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준영: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기관의 어려운 행정 용어 사용과 외국어 남용으로 말미암아 도민과의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 언어의 품질과 공무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립국어원과 ‘알기 쉬운 행정 용어 사용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바른 우리말과 우리글 사용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며, 행정 용어의 순화와 공문서 바로 쓰기를 비롯해 쉽고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어 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승욱: 그 이후 7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도 차원에서 쉬운 행정 용어 사용을 위해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박준영: 우리 도에서는 작년 11월에 ‘어려운 행정 용어 알기 쉬운 한글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 용어 순화 상시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서, 간행물, 보도 자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행정 용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개선해야 할 용어 370개를 찾아냈으며, 지난 3월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과 교수, 공무원으로 ‘행정용어순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어려운 행정 용어 105개를 심의해 91개의 순화 용어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순화 용어를 언론에 홍보하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했으며, 국립국어원에 순화어로 지정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승욱: 행정 용어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 것인지 방향과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박준영: 간단히 말해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령 전문 용어와 정부 등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일상적으로 굳어진 외국어 등은 그대로 사용해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행정 용어를 계속 조사해서 순화 대상 용어를 발굴하고, 공무원부터 한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해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에까지 전파해 한글 사랑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장승욱: 그동안 바뀐 행정 용어가 있으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박준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남도 행정용어순화자문위원회’에서 모두 91개의 용어를 심의해서 순화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로 암거’를 ‘통행 굴’, ‘관행 농법’을 ‘전통 농법’, ‘농후 사료’를 ‘고영양 사료’로 바꿨습니다. 또 ‘내구연한’은 ‘사용 연한’으로, ‘멘토링’은 ‘후원’ 또는 ‘상담’으로 고쳐서 쓰기로 했습니다.

장승욱: 지사께서 지적하신 ‘국적 불명의 언어’를 비롯해 우리의 국어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평소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영: 요즘 국영기업체들을 보면 이름을 영어로 바꾸는 것이 유행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지금 ‘EX’라고 합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저게 바로 엑스(X)다.”라고 했습니다. 도로공사라면 다 아는데 왜 굳이 ‘EX’라고 바꿔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철도 공사도 ‘KORAIL’이

라고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뿌리 깊은 사대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문과 한자를 중시했고, 지금은 또 영어를 써야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쓰는 것이 결코 고급 언어, 상류 언어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말에 대해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문화의 기본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는 한 나라 문화의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衣)는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복은 어쩌다 명절 때나 입는 것이 되었습니다. 식(食)도 그렇습니다. 양식을 먹으면 뭔가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먹은 것 같고,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국밥이나 설렁탕을 먹으면 싸구려를 먹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주(住)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아파트고, 단독주택도 양옥을 상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대주의가 우리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고받고 소통을 하는 수단인 언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호텔이란 말은 잘 안 쓰고 대하(大廈), 반점(飯店), 주점(酒店), 빈관(賓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텔은 제일 좋은 곳, 모텔은 그다음 좋은 곳, 그다음이 여관, 여인숙입니다. ‘신라호텔’을 ‘신라여관’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길 이름도 대부분 ‘무슨 대로(大路)’, ‘무슨 로(路)’라고 하고, 조그만 것은 ‘무슨 길’이라고 합니다.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 신도시의 길 이름을 지을 때, ‘무슨 대로’로 하자고 해서 제가 무조건 ‘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건 작건 간에 전부 ‘오룡길’, ‘후광길’처럼 ‘길’로 통일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로 저는 우리말 사전을 갖고 활용하자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영어 사전, 일본어 사전, 중국어 사전은 쓰면서 우리말 사전은 잘 안 씁니다.

또한 쉬운 말을 써야 합니다. 우리도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계획’이라는 말을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은하의 섬 개발 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섬들이 하늘에 별이 박혀 있는 것처럼 많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도민들에게는 ‘은하의 섬 개발 계획’이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Galaxy Island Project’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소통할 때는 우리말을 쓰고, 외국어는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장승욱: ‘실버타운’을 ‘은퇴자 도시’라고 직접 작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발행하는 신문 이름도 ‘전남새뜸’으로 아주 독특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지은 이름입니까?

박준영: 저는 늘 외국어 남용이 우리말을 위협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계 출신이지만 언론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신문 지면을 보면, 트래블, 에듀케이션, 이코노미, 톱텐 같은 말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저는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지적합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프로그램 제목을 보면, 굿모닝, 모닝 와이드, 이브닝 뉴스……, 이런 식입니다. 저녁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 뉴스, 저녁 소식이라고 하면 될 것을 이브닝 뉴스라고 합니다.

‘전남새뜸’을 만들 때, ‘뉴스’를 우리말로 바꾸려면 무엇으로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찾아보니 문익환 목사가 “뉴스는 우리말로 ‘뜸’이다, ‘새뜸’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쓰자,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도민들이 ‘새뜸’이란 말이 생소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 만나면 “새뜸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조금씩 퍼져 나가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젠가는 “9시 새뜸입니다.” 할 때도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승욱: ‘녹색의 땅 전남’이라는 슬로건도 직접 만드셨죠?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녹색의 땅 전남’, 이렇게 하자니까 담당자들 대답이 다른 데는 전부 영어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 서울은 ‘Hi Seoul’, 대구는 ‘Colorful Daegu’, 부산은 ‘Dynamic Busan’, 광주는 ‘Clean Gwangju’, 이런 식으로 한글 표기도 없이 영어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밴드왜건(bandwagon) 타지 마라. 누가 앞에서 나팔 불고 간다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독특한 나만의 것을 찾아야 한다.”

자연이 그대로 남아 있고, 햇볕이 가장 많고, 바다도 경영해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녹색인데, ‘녹색의 땅 전남’이라고 하니 우리 집사람도 보고 “남들이 촌스럽다고 하지 않을까요?”합니다. 그러나 촌스러운 것이 값나갈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욱: 좌우명이 ‘참배나무에 참배 열리고 돌배나무에 돌배 열린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박준영: 대학 시절에 《도산 안창호 평전》을 읽다가 발견한 문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 짧은 한 문장이 저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면 상응한 결과를 얻는다.’, 즉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평범한 말이지만,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지금 시대에는 의미가 큰 말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문구를 좌우명으로 삼아 매사에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원칙과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말, 한자말이 하나도 안 들어간 순수한 우리말 아납니까?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장승욱: 3선 도지사로서 이번이 마지막 임기가 될 텐데, 퇴임 이후를 대비해 마련해 둔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박준영: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저를 키우셨는데, 저도 머릿속에는 농업과 씨름한 것이 절반쯤 됩니다. 어떻게 농업을 살릴 것이냐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농업은 죽여서도 안 되고, 죽일 수도 없겠지만, 잘하면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둔 뒤에는 저도 농사를 지을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농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내가 가꿔서 먹는 그런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장승욱: 도지사로서 그동안 많은 일을 추진하셨는데, 그중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세 가지만 꼽아 주십시오.

박준영: 첫 번째는 그동안 전남이 한 번도 꿈꾸어 보지 못했던 국제 행사를 유치한 것입니다. 2010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농업박람회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유치에 한 번 실패했던 여수세계박람회를 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해 따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으로, 처음에는 모두 어렵다고 했던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의 52%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친환경 농업 하면 전남”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화순의 백신 공장, 순천의 마그네슘 공장, 목포의 구조 세라믹 센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 산업 기업들을 유치한 결과, 매년 3만 5000명씩 감소하던 인구가 지난해부터는 5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율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장승욱: 지방자치단체가 언어 문제와 관련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준영: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이나 국가기관, 한글 관련 단체 등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무질서한 간판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어도 우리말도 아닌 국적 불명의 간판이나 상호를 정비하도록 계도하고, 우수한 한글 간판이나 아름다운 거리 이름 같은 것에 대한 시상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 한글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또 요즘 보면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 ‘○○愛 놀자’, ‘○○ 愛너지’ 같은, 어법을 무시한 표현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 다문화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글 교육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장승욱: 요즘 영어 공교육이나 영어 공용어화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의 영어 능력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박준영: 저는 모든 국민이 다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외국어 교육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하다 보니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배우면 되고, 그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외교관도 되고, 국제 무역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어를 잘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중·고부터 대학 때까지 영어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교에 가 보면, 역사 시간에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것에 관

한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과서를 읽는 것으로 끝입니다. 예를 들어, 정철의 《사미인곡》이나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배운다면, 원전을 읽어 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 ‘정철=사미인곡’, ‘박지원=열하일기’ 같은 단답형, 객관적 지식만 남고 알맹이는 없게 됩니다.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 문제는 전체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장승욱: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바라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영: 국립국어원이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온 국민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힘쓰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금 외래어, 외국어의 오용·남용과 출처 불명의 비규범적인 언어의 범람, 그리고 영어의 조기 교육 열기에 비해 국민들의 국어 사용 능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된 듯한 느낌입니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해외에서의 한국어 배우기 열풍 등 한국어 교육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립국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 기관 등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바른 우리말을 사용한다면 정책의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 언론 등에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홍보하고 관련 단체의 한글 장려 운동을 통해 국민의 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장승욱: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작된 국어 사랑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박준영: 고맙습니다.

